2004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1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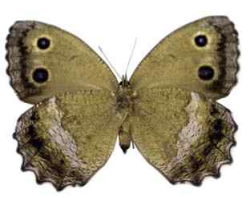
1. (물음) 이 강연에서 언급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② 

③ 

④ 

⑤ 

2. (물음) 선생님이 제시한 다음의 말을 정확하게 발음한 것은? [1점]

① 빛이　② 빛을　③ 솥을
④ 흙이　⑤ 값이

3. (물음) 이 강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반응은?

① 냄비 뚜껑은 열에너지의 방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군.
② 물 분자는 가열하면 분자들 사이의 결합력이 점점 약해지는군.
③ 수증기는 냄비에서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군.
④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은 날보다는 높은 날에 수증기가 더 많이 발생하겠군.
⑤ 김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와 달리 미세한 물방울들로 이루어진 액체 상태로군.

4. (물음) 여자의 의견이 남자와 다른 이유로 알맞은 것은?

① 영화 고유의 특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② 감독과 관객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③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에
④ 영화는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⑤ 영화의 성공 여부는 흥행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토론에서 드러난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대립적인 의견을 절충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② 두 입장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③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인과 관계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④ 문제시되는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⑤ 토론 참가자 양측의 의견이 지닌 장·단점을 설명하여 청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6. (물음) 토론을 듣고 난 후, 토론 참가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	여
주장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근거	①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정보 교환의 성격이 강하다.	② mp3 파일의 모체가 되는 음반은 저작물에 속한다.
	③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음악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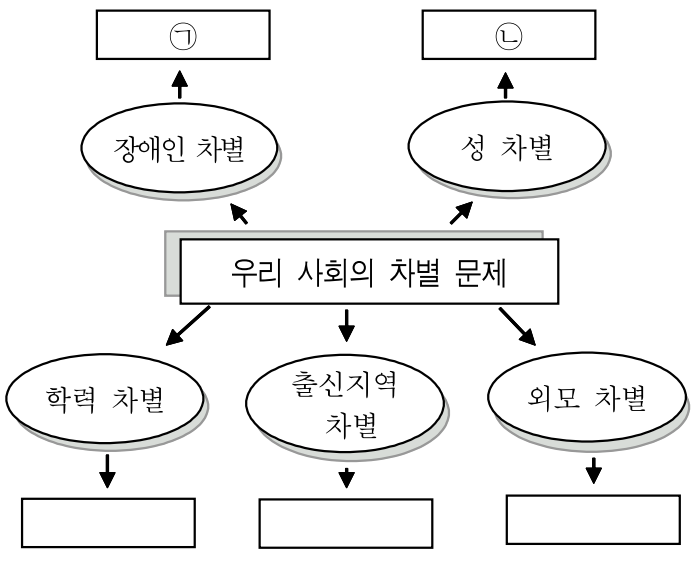
2 언 어 영 역

7. 만화를 보고 '선거'와 관련된 표어를 생각해 보았다. 적절한 것은?



① 한발 앞선 소신 투표, 백년 앞선 국가 발전
② 감시하자 부패 선거, 정착하자 공명 선거
③ 해보자 정책 대결, 뿌리 뽑자 지역 감정
④ 선거권은 행복권, 선거일은 참여일
⑤ 소중한 내 한 표, 민주사회 밑거름

8. 다음은 글쓰기에서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사고 과정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채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② ㉡ - 호주제를 폐지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③ ㉢ -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적 제도를 만든다.
④ ㉣ - 입사 지원서의 본적지 기록란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한다.
⑤ ㉤ - 신입사원 자격 요건에 신체조건을 명시하고 선발시험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

9.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내실화하자'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 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논지 전개 과정으로 보아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지 전개 과정	주요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	
문제의 원인은?	○ 봉사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 ○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 기존의 봉사활동 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의 가치를 깨닫도록 한다. ○ 봉사활동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과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구체적인 방안은?	[A]

① 봉사활동을 시간 위주로 평가하던 것을 봉사활동 내용도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② 학교와 지역 봉사활동 기관이 연합하여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 교육을 강화한다.
③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활동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체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한다.
④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늘려서 손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봉사활동의 가치를 알리는 공익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한다.

10.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격려의 쪽지를 남기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반영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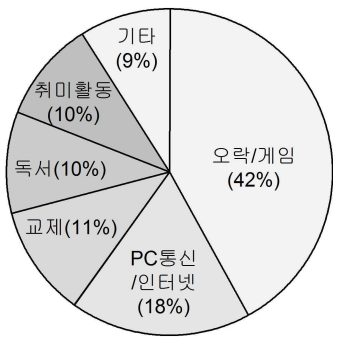
〈 보 기 〉
1.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할 것.
2. 비유적으로 표현할 것.
3.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할 것.

①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듯이, 열심히 노력하면 네 소망도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거야.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
②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단다. 목표만 확실하게 정하고 정진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날에 지금 한 고생의 보람을 느끼게 될 거야.
③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친다고 했다. 다가오는 미래는 너의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너의 선택에 달렸다.
④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버스 떠난 뒤에 손들어도 소용없듯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먼 훗날 후회하게 될거야.
⑤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는 네 뒷바라지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렴. 그리고 장래에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을 상상해보렴.

11. 개요를 작성한 뒤, 관련 자료 두 가지를 더 첨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3점]

제목 : 청소년의 바람직한 여가 생활
Ⅰ.서론 - 여가의 중요성과 효과
Ⅱ. 본론
  1. 청소년 여가 생활의 문제점
    가. 성인의 여가 활동 모방
    나.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의 부족
    다. 청소년을 위한 여가 공간의 부족
  2. 청소년 여가 생활의 개선 방안
    가. 생산적인 놀이의 개발 및 보급
    나. 건전한 가족 여가 문화의 확립
Ⅲ. 결론 - 청소년 여가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자료 1>



[청소년의 여가 활용]

<자료 2>

방과 후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 설문 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65%가 늘려야 할 여가 공간으로서 체육시설이나 놀이터 및 공원을 꼽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문에 실린 기사]

① 자료1을 활용하여 Ⅱ-1에 '불건전한 또래집단 중심의 여가 활동'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② 자료1을 활용하여 Ⅱ-2에 '청소년의 개성과 소질 계발 위주의 교육 정책 확립'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③ 자료2를 활용하여 Ⅱ-2의 '가'에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놀이 문화의 보급'을 추가한다.
④ 자료2를 활용하여 Ⅱ-2에 '청소년용 여가시설에 대한 적절한 감독 강화'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⑤ 자료2를 활용하여 Ⅱ-2에 '청소년에게 적합하고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1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쓴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자기 평가표를 작성해 보았다. 바르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끄러움'의 의미

'부끄러움'은 인간이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에 젖어들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순수한 감정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감성인 것이다.

㉠ 그러므로, 전후의 폐허적 상황에서 출발한 급격한 근대화의 흐름은 정신적 가치를 외면한 ㉡ 체, 물질적인 개발에 치우치는 불균형 상태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삶의 참 모습은 사라지고, 물질적 가치만이 유일한 삶의 지표로 작용하는 세계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세속적 욕망과 금전적 가치 위에 이루어진 그릇된 삶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의 의미는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소중하게 되살아난다. ㉢ '부끄러움'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추악한 현실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기본이다.

	평가 항목
①	제목과 글의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②	문단은 적절히 구별되어 있는가?
③	㉠과 같은 접속어의 사용은 자연스러운가?
④	㉡과 같은 어휘 사용은 적절한 것인가?
⑤	㉢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적절한가?

13.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1점]

〈 보 기 〉

○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이란 낙하산 타기와 행글라이딩을 (㉠)한 항공 스포츠이다.
○ 세 방송사가 각각 치르던 가요 시상식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해져서, 최근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 1차 대전 후, 동유럽의 소련군에 대항하기 위해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이 (㉢)하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결성하였다.

	㉠	㉡	㉢
①	통합(統合)	결합(結合)	연합(聯合)
②	결합(結合)	연합(聯合)	통합(統合)
③	연합(聯合)	결합(結合)	통합(統合)
④	통합(統合)	연합(聯合)	결합(結合)
⑤	결합(結合)	통합(統合)	연합(聯合)

14. 어법에 맞고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은? 〔1점〕

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② 나는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숲을 뒤져 장작을 구해 왔다.
③ 생활수준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절약하는 관습을 버려서는 곤란하다.
④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예전에는 어촌이었는데 태어나지는 않았다.
⑤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후 그다지 인심이 후하던 그녀도 마음이 달라졌다.

15. '갑'에 대한 '을'의 말 중, 〈보기〉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말만 잘 하면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언어생활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효과적인 표현 방법의 하나로 자신에 대한 칭찬은 줄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① 갑 : 넌 어쩜 그렇게 성적이 우수하니? 난 네가 부러워.
을 : 모두 우수한 건 아냐. 국어는 어휘력이 많이 부족해.
② 갑 : 우리와 함께 수학여행 답사를 다녀오는 게 어때?
을 : 같이 가고는 싶은데 내가 할 일이 좀 많아서……. 미안하다.
③ 갑 : 난 특별히 잘 하는 것이 없어.
을 : 없긴 왜 없니? 영어선생님께서 네 발음이 좋다고 칭찬하셨어.
④ 갑 : 올 여름 피서는 바다로 가자.
을 : 바다보다 계곡이 더 좋은데……. 좋아, 계곡이든 바다든 피서하면 되지 뭐.
⑤ 갑 : 내가 자네에게 좀 더 해 주고 싶은 말은…….
을 : 바쁘신데 저 때문에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다음에 또 듣겠습니다.

[16～2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나물 캐고, 저녁에는 고기 낚세. 이제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數) 세며 마시리라. 봄바람 문득 불어 푸른 들 건너오니, 맑은 향기 술잔에 가득, 붉은 꽃잎 옷에 진다.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말하여라. 소동(小童)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동이 메고, 나직이 흥얼대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시내 굽어보니, 떠오는 건 도화로세. 무릉이 가깝구나 저 들이 무릉인가. 솔숲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꽃 부여잡고, 봉우리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수많은 마을들 여기저기 벌여 있네. ㉠안개 놀 햇빛은 비단을 펼쳐 논 듯.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이 완연하네. 부귀(富貴)도 날 꺼리고 공명(功名)도 날 꺼리니,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누추한 곳 가난한 삶 헛된 생각 아니하네. 아무튼 평생 즐김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정극인, '상춘곡'

(나)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 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

(다)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들여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 김현승, '지각(知覺)'

(라) 활짝 갠 날씨에 물색이 산뜻한데
즐거운 놀이에 온갖 회포와 시름 다 잊는다.
지는 해를 머금은 강물은 황금 빛이요
바람결에 흩날리는 버들솜은 흰 눈이어라.
㉣ 고향 강산은 천 리 밖에 먼데
한 두루미 술로 담소를 나누니 만 가지 인연도 부질없네.
감흥이 일어 새로운 시 한 수 쓰려 하나
붓 들어 적으려 하니 호기(豪氣) 모자라 부끄러우이.
- 정지상, '춘일(春日)'

16.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가), (나)에는 청자가 드러나 있다.
② (나), (다)에는 이미지의 대조가 드러나 있다.
③ (나), (라)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④ (가), (다)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가 드러나 있다.
⑤ (다), (라)에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17. (가)의 시적 화자 '갑'과 (라)의 시적 화자 '을'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 : 이렇듯 아름다운 봄날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② 을 : 저도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시름을 잊을 수 있으니 기분이 좋군요.
③ 갑 : 경치를 즐길 때면 가끔은 내가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④ 을 : 제가 체득한 호연지기를 시(詩) 속에 표현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군요.
⑤ 갑 : 저도 자연을 벗하는 삶이 좋아요. 부귀공명에는 별 뜻이 없습니다.

18. (나)의 ㉮와 〈보기〉의 표현상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3점]

①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③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변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대비적 소재를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19. 〈보기〉의 다음 시어들 중 (다)의 '내일의 별'과 그 이미지가 상응하는 것은?

〈 보 기 〉
태양(太陽)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城)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 신석정, '꽃덤불'에서

① 달빛 ② 밤 ③ 성(城)터
④ 하늘 ⑤ 태양

20. 다음은 (나)에 대한 감상이다. 내재적 의미에 주목한 것은? [1점]

① 보람 : '-라'라는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② 유림 : 이 시를 읽고 나서 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③ 희정 : 독립운동가였던 시인의 행적을 고려해보면 '매화 향기'는 고매(高邁)한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④ 경아 : 시인의 역사의식을 감안하면 '광야'라는 말은 단지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으로 이해할 수 있어.
⑤ 자연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창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후손일 거야.

21. (다)의 화자가 성적이 떨어져 실의에 빠진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괜찮아, 성적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괴로워하니.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② 다 털어 버리고 바람 쐬러 놀이 공원에 가자. 놀다보면 성적 떨어진 일은 잊을 수 있을 거야.
③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해서 떨어진 성적이 다시 오르지 않아. 일단 모든 일을 잊고 집에 가서 쉬도록 해라.
④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열심히 공부한다면 다음에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야.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⑤ 집에 가서 성적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분석해 보도록 해라. 그래야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지.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② ㉡ : 대상의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③ ㉢ : 대구 · 반복의 기법이 드러난다.
④ ㉣ : 반어적 표현에 따른 형상화 기법이 드러난다.
⑤ ㉤ : 심리적 거리감을 수량화한 표현이 드러난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달항아리는 도자기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서 항아리에 가깝다는 느낌을 주는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의 별칭이다. 앞에 '달'자가 붙은 것은 둥실 떠오르는 보름달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항아리 가운데 간혹 한쪽으로 살짝 일그러진 것이 있다. 이는 달항아리를 만들 때 큰 대접같이 생긴 것 두 개를 따로따로 빚어 위아래로 마주 엎는데 위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아래쪽이 약간씩 내려앉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운 다음 기둥 위에 얹는 것이 보이다. 보 위에 도리를 얹고 다시 서까래를 얹으면 한옥의 구조가 완성된다. 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대들보인데, 이것은 아래쪽의 기둥과 위쪽의 지붕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구조물이다. 재미있는 것은 대들보 가운데 간혹 심하게 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휘어진 목재가 대들보로 심심치 않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이다.

일그러진 달항아리와 휘어진 대들보. 물론 달항아리와 대들보가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사실인즉 일그러지지 않은 달항아리와 휘어지지 않은 대들보가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인들은 달항아리가 일그러졌다고 해서 깨뜨려 버리거나, 대들보감이 구부러졌다고 해서 고쳐서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살짝 일그러진 달항아리나 그럴싸하게 휘어진 대들보, 입술이 약간 휘어져 삐뚜름 능청거리는 사발이 오히려 멋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일그러진 달항아리와 휘어진 대들보에서 '형(形)의 어눌함'과 함께 '상(象)의 세련됨'을 볼 수 있다. 즉 '상의 세련됨'을 머금은 '형의 어눌함'을 발견하게 된다. 대체로 ㉠ 평균치를 넘어서는 우아함을 갖춘 상은 어느 정도 형의 어눌함을 수반한다. 이런 형상을 가리켜 아졸하거나 고졸하다고 하는데, 한국문화는 이렇게 상의 세련됨과 형의 어눌함이 어우러진 아졸함이나 고졸함의 형상으로 넘쳐난다.

분청이나 철화, 달항아리 같은 도자기 역시 예상과는 달리 균제적이거나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같은 비균제성이나 비대칭성은 무의식(無意識)의 산물이 아니라 '형의 어눌함을 수반하는 상의 세련됨'을 추구하는 미의식(美意識)의 산물이다. 이러한 미의식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 파악하는 우리민족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천지인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23.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점]

① 분청과 철화에 나타난 미의식의 차이
② 휘어진 대들보가 사용된 시기
③ 달항아리를 만드는 방법
④ 달항아리 명칭의 유래
⑤ 한옥의 구조

24. 위 글의 내용을 뒷받침할 사진 자료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균형이 잘 잡힌 도자기
② 실물과 똑같이 그린 인물화
③ 사찰의 색채가 선명한 단청
④ 규칙적으로 쌓아 올린 벽돌담
⑤ 길이가 다른 옷고름과 엇갈린 깃의 한복

2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상(象)'은 '형(形)'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감각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을 '형'이라 한다면, 자연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상'이라 한다.

① 예지: 한옥에서는 '형'의 어눌함을 찾아볼 수 없어.
② 보람: 삐뚜름한 대접에서 '형'의 세련됨을 찾을 수 있어.
③ 윤희: 휘어진 대들보에서는 '상'의 세련됨을 발견할 수 없어.
④ 소라: 한국인의 미의식은 '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⑤ 수빈: 일그러진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의 세련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26.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한 사례는?

① 서민이 그린 민화에 묘사 대상이 완벽하게 표현된 경우
② 하나의 화폭에 여러 시점에서 본 산의 모습을 담은 경우
③ 선비의 격조 높은 글씨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치졸한 맛도 풍기는 경우
④ 고매한 예술적 경지를 표현한 그림에서 구체적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⑤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사실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 분담이 뚜렷했으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차 남녀 역할에 차이가 줄어들었다. 특히 21세기에는 남녀의 역할 구분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차이가 없어진다 해도 생물학적 제한 조건으로 인한 최소한의 차이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남녀의 의사 소통 방식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이 형식면에서는 같은 언어 체계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용하는 어휘는 같지만, 그 내용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지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 소통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감정의 강도와 인간 관계에 따라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여성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서도 남성이 그 속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남성은 직접적 표현에 익숙해져 있어서, 직접적인 요청을 할 때 더 잘 받아들인다.

〔A〕 대화 양식에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양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체로 내면의 동굴 속에 들어가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반면, 여성은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싶어한다. 서로 자신이 받고 싶은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해 주려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남성은 여성의 신뢰와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은 상대가 마음으로부터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자신이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미디어 이용 양식에서도 나타난다. 남성은 사실적인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여성은 인간 관계의 대리적 경험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를 많이 시청한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차이일 수도 있다. 즉, 남성이나 여성이나 전문직에 있을 때에는 정보를 많이 추구하고 주부와 같은 역할을 할 때에는 관계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에게도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므로 성별의 차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감성과 ㉡이성, 관계와 정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쪽을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참된 의미의 공유를 위한 의사 소통 과정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이 이성과 정보에 우월하고 상대방이 감성과 관계에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한 쪽을 이해하지 못할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참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방면에 우월성을 보이는 남녀의 협력이 필요하다.

27. 위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① 남녀의 성 역할 차이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② 현대인들은 양성 평등의 가치관을 함양해야 한다.
③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④ 현대인들은 의사 소통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원만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대인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① 남성과 여성은 스트레스 대응 방식이 유사하다.
②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정서적 욕구에는 차이가 없다.
③ 남녀의 미디어 시청 양식에서 성별의 차이는 무의미하다.
④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의 형식은 동일하다.
⑤ 남성은 간접적 표현을, 여성은 직접적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29. 〔A〕에 쓰인 설명 방식과 유사한 것은?

① 한국어는 터키어, 몽고어, 만주어와 함께 알타이 어족에 속하며,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헝가리어 등은 우랄 어족에 속한다.
② 큰 그릇에다가 배추를 반으로 잘라 넣고, 배추에 굵은 소금을 뿌린 뒤 약간의 물을 부어 1시간 정도 절인 다음 다시 위아래를 두세 번 뒤적여 고루 절여지게 한다.
③ 단백질과 전해질, 그리고 수분으로 이루어진 혈장은 피의 55% 정도를 차지하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이루어지는 혈구 세포는 피의 45%를 차지한다.
④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물체를 부분들의 구성으로 보고 그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본질 파악을 추구하였다면 동양은 요소들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았다.
⑤ 사회는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와 같다. 각 부품들이 제 기능을 해야만 자동차가 온전히 굴러가듯,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30. 위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과 유사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①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화방에서 붓을 샀다.
② 현대인들의 삶에서는 노동 못지 않게 휴식도 중요하다.
③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④ 환경 문제를 무조건 기술과 법률로 해결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⑤ 영화란 스크린 위에 움직이는 영상과 음향으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오던 공룡이 6천 5백만 년 전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졌다. 왜 공룡들이 갑자기 사라졌을까. 이러한 미스터리는 1820년대 공룡 화석이 처음 발견된 후 지금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공룡 멸종의 원인을 밝혀보려는 노력은 수없이 많았지만, 여러 멸종 이론들 중 어느 것도 공룡이 왜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부딪친 사건을 공룡 멸종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과학자들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지름이 180km나 되는 커다란 운석 구덩이의 연대를 측정했는데, 이 운석 구덩이의 생성 연대가 공룡이 멸종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생긴 직접적 충격으로 인해 공룡을 비롯한 수많은 종이 갑자기 멸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충돌 때문에 발생한 2차적 영향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처럼 거대한 구덩이가 생길 정도의 파괴력이면 물리적 충격은 물론 지구의 대기를 비롯한 생존 환경에 장기간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생명체들이 멸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최근 뉴질랜드 국립 지리·핵과학 연구소(GNS)의 조사팀은, 운석과 충돌한 지점과 반대편에 있는 '사우스'섬의 서부해안에서 발견된 '탄화된 작은 꽃가루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환경의 변화가 운석과의 충돌 지점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6500만 년 전의 지층인 K-T 퇴적층에서는 지구에는 없는 원소인 팔라듐이 다량 발견되었고, 운석에 많이 함유된 이리듐(Ir)의 함량이 지구의 어느 암석보다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것 역시 '운석에 의한 충돌설'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공룡이 멸종됐던 백악기 말과 신생대 제3기 사이에 바다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의 용해 정도가 갑자기 증가한 것도 당시 지구에 급속한 기온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운석에 의한 공룡의 멸종설은 점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생물들이 있다는 데에 있다. 씨앗으로 동면(冬眠)할 수 있는 식물들과 비교적 조그만 동물들이, 대기권을 가득 메운 먼지로 인해 닥친 '길고 긴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생존하였다. 그것은 거대한 몸집의 공룡보다는 은신처와 먹잇감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며, 생존에 필요한 기초 활동들이 공룡보다는 용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룡이 멸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운석과의 충돌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나 공룡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종(種)이, 갑작스럽게 멸종하느냐 진화하면서 생존하느냐 여부는 '자연에 대한 적응력'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이것이 생존의 조건인 셈인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더 많은 생존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번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적응력이 뛰어난 어떤 돌연변이의 후손들은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며 생존하기도 한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일 공룡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났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껏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31. 〈보기〉의 과정에 맞추어 위 글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현상 ----------
- 가설 ----------
  - 가설에 대한 증거 ----------
  - 가설 수정의 계기가 되는 증거 ----------
- 가설의 확대 ----------

① (a): 지구상의 공룡이 멸종되었다.
② (b): 운석 충돌에 의해 공룡이 멸종되었을 것이다.
③ (c): 운석 충돌의 시기와 공룡 멸종의 시기가 일치한다.
④ (d): 공룡의 멸종 당시에도 살아남은 생물들이 있다.
⑤ (e): 공룡은 돌연변이 종을 통해 진화하였을 것이다.

32.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① 재산을 보고 결혼해서야 되겠니?
② 기회를 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③ 집을 살지 말지는 좀더 두고 본 뒤에 결정합시다.
④ 교차로를 건널 때에는 신호등을 잘 보고 건너야 한다.
⑤ 그들은 증인이 말한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3. 위 글로 미루어 ㉡의 구체적 내용을 적절히 추리한 것은?

① 운석과의 충돌은 반대쪽에도 엄청난 반사 충격파를 전달하여 전 지구적인 화산 활동을 초래하였다.
② 운석과의 충돌은 지구의 공전궤도에 변화를 주어, 밤낮의 길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의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
③ 운석 충돌로 발생한 먼지가 지구 대기를 완전히 뒤덮어 햇빛이 차단되었고 따라서 기온이 급속히 내려갔다.
④ 운석과의 충돌은 엄청난 양의 유독 가스를 발생시켜,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게 되었다.
⑤ 운석 충돌의 충격으로 대륙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 다른 대륙에서 옮겨온 질병과 기생충이 기존의 생명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34. 위 글을 읽고 난 후, 〈보기〉의 가설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지름이 10km에 달하는 운석이 지구에 부딪쳤고 이때 수천℃의 열이 발생했다. 충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충돌 후 생겨난 대규모의 운석 파편들이 대기권과 다시 부딪쳐 지구 대기권 전체는 40여 분 동안 엄청난 열로 뒤덮였다. 한마디로 지구는 전자오븐 상태가 됐고, 공룡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

① 지구 전체가 전자오븐 상태였다면 웬만한 생명체는 살아남기 힘들었겠는 걸.
② 변화에 민감한 공룡이 이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③ 전자오븐 상태든 빙하기든 간에 운석의 충돌로 인해 공룡이 멸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④ 지구 대기권이 고열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좀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했겠는 걸.
⑤ 공룡처럼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 단기간 동안 이루어진 온도 상승 때문에 멸종했다고 볼 수 있을까?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한 나라의 언어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를 반영한~~다.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문화의 흔적들은 어휘, 문장 구조 등 의사소통의 관계를 투영하는 모든 측면에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친족 관계의 윤리적인 제도가 발달한 우리 문화에서는 촌수를 정밀하게 따지며, 그에 따라 친족 호칭이 세분화되었다. 영어에서는 'uncle'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시되는 삼촌도 백부, 숙부, 외숙으로, 사촌도 친사촌, 외종, 고종을 구분하여 부른다. 그리고 영어와는 달리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반말과 존대어의 이원적 대립 체계에 기초한 것이다.

국어는 감각어가 매우 발달했는데, 이는 본래 풍류를 즐기는 낙천적인 민족으로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성향을 지닌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징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색채어(色彩語)에서 일례를 들어 보면, 영어에서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은 'yellow' 하나 정도인 데 비해 국어에서는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이 '노랗다, 노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르툭툭하다, 노리께하다, 노리끄레하다, 노리무레하다, 노릿하다, 노릿노릿하다, 노리툭툭하다, 누렇다, 누리께하다, 누르무레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릇하다, 누릇누릇하다, 누르툭툭하다, 누르칙칙하다, 샛노랗다, 싯누렇다'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러한 예들을 살펴보면 국어의 감각어가 얼마나 다채롭게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 국어에서는 어떤 행위를 문장의 주어가 스스로 했는지 남을 시켜서 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와서도 "나 오늘 이발했어."라고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영어에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런 현상은 집단의 동질감을 개인보다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국어를 배움으로써 문화적 전통을 동시에 습득하고 문화적 동질감을 갖게 되며, 정서적으로는 민족적인 유대감(紐帶感)이 형성된다. 문화란, 사회적으로 습득된 지식이다. 어려서 습득한 문화적 특징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보 기 〉

ㄱ. 국어는 영어와 달리 높임법이 발달했다.
ㄴ. 국어는 영어에 비해 친족호칭어가 좀더 세분화되어 있다.
ㄷ. 국어는 영어와 달리 동작·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밝힌다.
ㄹ. 국어는 영어와 비교하여 색채를 나타내는 어휘의 수가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 짖는 소리를 우리는 '멍멍' 또는 '왕왕'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bow-wow', 러시아어에서는 'gav-gav'라고 한다.
② 우리말에는 '따비, 괭이, 쇠스랑, 가래, 호미, 낫, 고무래, 용두레, 꼴망태'와 같은 농사 용어가 매우 발달하였다.
③ 추운 지역에서 눈과 함께 생활하는 날이 많은 에스키모인의 언어에는 '눈〔雪〕'에 관한 단어가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다.
④ 영어의 'you'는 신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쓰이지만 'you'에 대응되는 우리말 '당신'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하 관계가 고려되어 사용된다.
⑤ 영어에서는 'ladies and gentlemen'이라 하여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말하는 데 비해 우리말에서는 '신사숙녀'라고 하여 남자를 먼저 내세운다.

37. '갑'에 대한 '을'의 말 중 ㉡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갑: 이 아프다며? 충치 치료는 받았니?
을: 이 빼러 어제 치과에 다녀왔어.
② 갑: 어? 칠판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을: 내가 칠판을 지웠어.
③ 갑: 무슨 일 있었니? 왜 이렇게 늦었어?
을: 러시아워라서 차가 한 시간 동안이나 멈춰 있었어.
④ 갑: 배고프지 않니? 어서 밥 먹어.
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요.
⑤ 갑: 얘야, 안에 있니? 방에서 꿈쩍도 안 하고 뭐 해?
을: 벽에 포스터 붙이고 있어요.

38.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군.
② 문화적 특징이 담겨 있는 언어는 국어뿐이로군.
③ 국어는 영어보다 우수한 언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모든 문화는 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로군.
⑤ 우리 언어문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육관대사가 연화봉에서 불법을 베푼다. 용왕이 설법 자리에 늘 참석하자 대사는 제자 성진을 보내 사례하는데, 성진은 용왕의 술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중 석교에서 위부인의 시녀 여덟 명을 만나 복숭아꽃으로 구슬을 만들어 준다. 성진은 팔 선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세속의 부귀공명으로 번뇌하다가 육관 대사의 명으로 팔 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 성진은 인간 세상에 양소유로 환생하여 차례로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되고 벼슬이 승상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한가히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어느 가을날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 홀연 석양(夕陽)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고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胡僧)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고이하더라. 엄연(儼然)히 좌상(座上)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慌忙)히 답례 왈,
"사부(師傅)는 어디로서 오신고?"
호승이 소왈(笑曰),
"평생 고인(故人)을 몰라보시니 귀인(貴人)이 잊음 헐탄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올 길에 남악에 가 보니,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經)을 강론(講論)하더니 노부가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拍掌大笑)하고 가로되,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夢中)에 잠깐 만나 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동처(同處)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茫然)하여 가로되,
"소유,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座下)를 떠나지 아녔고, 십육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으니, 동으로 연국(燕國)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밖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아녔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오?"
호승이 소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春夢)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 어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녘 묏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이어 지척(咫尺)을 분변(分辨)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게야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引導)치 아니하고 환술(幻術)로 서로 희롱하나뇨?"
㉢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驚惶)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香爐)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낱 염주(念珠)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道場) 성진(性眞)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受責)하여 풍도(酆都)로 가고, 인세(人世)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공명신퇴(功名身退)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必然) 사부가 나의 염려(念慮)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富貴)와 남녀 정욕(情欲)이 다 허사(虛事)인 줄 알게 함이로다.
급히 세수(洗手)하고 의관(衣冠)을 정제하며 방장(方丈)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성진이 고두하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不肖)하여 염려를 그릇 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세에 윤회(輪廻)할 것이어늘, 사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를 마음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 겁(劫)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 대사 가로되,
"네 승흥(乘興)하여 갔다가 흥진(興盡)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예함이 있으리오? 네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네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장주(莊周)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 되니' 어니 거짓 것이요 어니 진짓 것인 줄 분변치 못하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니는 진짓 꿈이요 어니는 꿈이 아니뇨?"
성진이 가로되,
"제자, 아득하여 꿈과 진짓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법하사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39. 위 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점]

① 양소유는 꿈 속에서 호승을 만난 적이 있다.
② 육관 대사는 성진이 꿈을 꾸도록 도와 주었다.
③ 양소유는 처음부터 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아보았다.
④ 성진은 인간 세계에 양소유로 태어나 세상의 부귀를 누렸다.
⑤ 꿈에서 깨어난 성진은 인세와 꿈이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40. 위 글의 '꿈에서 깨어난 성진'과 〈보기〉의 화자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삶과 죽음의 길은 / 이에 있음에 두려워하여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 다 이르고 갔는가?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 저기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 아아, 극락세계에서 만나 볼 나는 / 불도(佛道)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① 성진 : 누이가 갑자기 죽어 얼마나 삶이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또한 세속적인 감정이 아닐까요?

② 〈보기〉의 화자 :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사의 인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네요.

③ 성진 :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 또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참을 괴로워했죠.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덧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불도에 매진하도록 합시다.

④ 〈보기〉의 화자 :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당신 말처럼 저도 불도를 닦으며 극락 세계에서 누이를 만날 날을 기대하렵니다.

⑤ 성진 : 그래요. 제가 대사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얻으려 하듯이 당신도 불도에 정진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41.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와 같은 수행평가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질 문	답변

42. 위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영화로 제작하려 한다. 이때 ㉠~㉤ 부분에 대해 기획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호승의 이인(異人)다운 풍모가 드러날 수 있도록 배우의 분장에 신경을 써야겠군.

② ㉡ : 특수 효과 장치를 사용하여 관객이 이 장면에서 시각적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군.

③ ㉢ : 오버랩으로 처리해서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군.

④ ㉣ : 양소유로서 살았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 주어 성진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야겠군.

⑤ ㉤ : 육관 대사 역을 맡은 배우는 자부심에 찬 어조로 말하도록 해야겠군.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만 허둥거리며 살아왔다. 차근히 한 층, 한 층 밟아야만 할 과정을 다 밟고 올라가는 성실한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거나, 또는 약삭빠르게 잔재주로 앞지르려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었다. 얼마나 높게 오르느냐 하는 것만을 고개 들어 쳐다보았기에, 쉽게 오르려 했었다. 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르려는 욕심 때문에, 남을 제치거나 딛고 올라서려 했었다. 끝이 있는 삶의 계단에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힘이 드는 나이에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립 중앙 박물관의 높은 돌계단이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내 삶의 성실성을 시험해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야, 내 삶의 계단을 얼마쯤 올라서서,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쯤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수없이 많은 층계를 밟아 오르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차근히 제대로 발을 옮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다리에 힘주고 무릎을 짚어 가면서 이마의 땀을 씻게 되니, 한 층 한 층 올라딛고 서는 그 힘겨움에서 과연 얼마나 보람을 느꼈었는지 이제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얼마나 숨차게 헐떡이며 남을 밀쳤는지, 몇 번이나 헛디딜 뻔했는지, 또 뒤에서 남 보기에 흉하도록 갈지(之) 자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

어렸을 적, 고향의 돌층계에서 동무들과 가위 바위 보를 하며 누가 먼저 올랐든 간에, 그림자가 길게 돌층계에 늘어지게 되면,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미련 없이 내려와 그 곳을 떠났었다.

지금 내 삶의 층계에서는 앞으로 내 인생의 계단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다만, 인생의 해가 지게 되면 미련 없이 비켜서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밟게 되어 있는 층계 한 단씩을 딛고 밟아 올라서면서 다리가 무겁도록 힘이 들어도, 되도록, 성실하게 내딛는 바로 그 때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결국 보람의 전부(全部)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유경환, 돌층계

(나) 나는 길고 아득한 인생 여로의 대목마다 가로등이 켜 있기를 빌었다. 참으로 가로등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것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은은히 비치는 별빛이다. 나는 그것을 목표로 어둔 길을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게 된다.

〔A〕 가로등 가까이 이르게 되면 길이 환해지고, 때로는 목표한 가로등에 함박눈이 잉잉거리는 벌떼처럼 설레기도 하고, 가는 실비가 비단 베일을 씌우며 신비롭게 속삭이기도 하고, 혹은 어둠 속에 등불만 쫑긋이 켜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상 목표한 가로등을 지나면 나의 그림자가 발에 밟힌다. 그림자가 밟히는 사실을 나는 무어라 표현할까? 눈물겨운 추억의 한 자락이 발에 밟히는 것이라 할까? 나는 이 어둡고 고독한 밤길에 다만 가로등이 비쳐주는 그만큼의 '빛의 둘레' 속에 나의 그림자와 더불어 호젓이 길을 걷는 한갓 영상(影像)으로 화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건너가는 나 자신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흐뭇한 고독감…….

그것은 나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서러움의 물길이다. 이 물길 위에 배를 띄우듯 어줍잖은 몇 편의 시…… 그것이 나의 숨쉬는 시의 세계일 것이다.

가로등이 비쳐주는 이러한 빛의 둘레를 완전히 벗어날 때 앞이 아득한 암흑의 벽을 느끼며 어두운 앞길에 또 하나의 가로등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가로등이 없을 경우 아득한 어둠은 영원한 어둠이 아닐까 보냐.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다.

나의 일생은 언제나 적당한 거리에 가로등이 켜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지나온 길 위에 그것은 열을 지어서 스크린의 어느 한 장면처럼 끝없이 뻗쳐 있다. 또한 나의 미래도 설사 아무리 절망하기로 늘 가로등이 대목마다 켜 있는 길일 것이다. 내가 마음 속의 신을 잃지 않는 한, 혹은 시(詩)를 놓치지 않는 한, 나는 창백한 이마에 가로등의 그 쓸쓸한 불빛의 키스와 축복을 받으며 외롭게 흐뭇한 밤길을 가게 될 것이다. - 박목월, 가로등

43.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대조적인 사례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③ 사물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④ 일화를 인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일깨우고 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각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성공한 삶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비결이 있으니 그것을 잘 분석하는 것이 좋겠어.
② 목표가 지나치게 원대하면 이루기 어려우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군.
③ 삶에 대한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군.
④ 부끄러운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군.
⑤ 얼마나 빨리 목표에 도달하는가보다는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겠군.

45. (나)에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①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현실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②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지니고 있다.
③ 현실보다는 미래의 이상향을 동경하고 있다.
④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46. [A]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군.
② 자문자답(自問自答)의 형식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끌어내고 있군.
③ 자신의 시 작품을 '어줍잖다'고 표현한 데서 글쓴이의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어.
④ 글쓴이는 이제 와서야 자신이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쓸쓸함을 느끼고 있어.
⑤ 가로등이 없으면 어둠에 빠지는 것처럼, 삶의 지표를 잃어버렸을 때 인생은 무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님, 우리 아이 천도(遷度)* 좀 잘 시켜 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가엾어서……."

어머니는 콧물을 짠다. 어제 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시름을 들었을 주지승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승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하갔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두 안 오시니 어떡허나." /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주지중을 쳐다본다.

"시님, 그만 우리 아일 먼저 해주세요."

주지는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 그럼 댁부터 해 드릴까 ……."

주지는 그렇게 작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

"아우님!"

아우님이라고 불린 여승은 돌아본다.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여승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제 저녁에 이천 환 낸 분인데 아직 서장댁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중략〉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승이 씨근덕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아우님 빨리 하시오. 지금 막 서장댁이 오셨구려. 대강대

강 하시오."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 둔 먹물 들인 모시 장삼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佛前)에서 영전(靈前)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대로 불경 읽기나 끝마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까 공양을 나르던 젊은 중이 이번에는 널따란 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진영의 모녀를 돌아다보며 영가(靈架)** 앞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놓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 문수의 손길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향을 꽂고, 은행에서 갓 나온 듯한 십 환짜리 스무 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꽂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가지고 영전에 놓은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빳빳한 새 돈은 흡사 백 환권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영은 송구스런 생각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진영은 머리속에 피가 꽉 차오는 것을 느낀다. 돈을 그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한 어머니의 인색함을 심히 저주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놓는다. 나물, 떡, 자반, 과실,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런 약과에 손이 닿자 별안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두구려!"

바락 소리를 지른다. 젊은 중은 진영을 힐끗 보면서 총총히 바깥 시식돌〔施食石〕로 음식을 버리러 나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푹 쌌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 퍼부었다. 울음 속에 그 목에 매달리던 문수의 손길이 느껴진다. ㉢ 미칠 듯한 고독과 그리움이 치솟는 것이었다.

음식을 버리고 돌아온 젊은 중은 과실을 모으며,

"이걸 가져 가셔야지. 보자기를……"

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진영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리며,

"㉣ 일 없소. 그만두시오."

진영의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일을 다 미치고 법당 밖에 나온 늙은 중이,

"왜 가져온 걸 안 가져 가슈"

쳐다보지도 않는 진영이 대신 어머니가,

"뭐 그걸……"

진영의 얼굴을 어머니는 숨어 본다. 늙은 중은 침을 꿀꺽 삼키며,

〔A〕"댁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 진영의 눈이 번득였다.

〔B〕"조반을 자셔야 할 텐데 너무 일러서 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좀 기다리실까요?"

젊은 중은 그런 말을 남기고 가버린다.

㉤ 진영은 법당 축돌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 온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貨幣)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 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 입은 그 서장의 부인인 듯싶은 젊은 여인이 주지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밖으로 흘러 나왔다.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진영은 발딱 일어선다.

〔C〕"어머니, 그냥 갑시다."

- 박경리, 불신시대

*천도 : 죽은 혼령을 극락세계로 가게 함.
**영가 : 영혼.

47. 위 글을 〈보기〉의 방법으로 학습할 때, '탐구적 과제'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소설 읽기는 발견적 과제에서 탐구적 과제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적인 얼개를 확인하는, '등장 인물은 누구인가, 배경은 언제 어디인가'라는 식의 질문처럼 소설을 읽어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발견적 과제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왜 그러한가,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등의 소설 이해에 의미 있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탐구적 과제라 한다.

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몇 시쯤인가?
② 중이 왜 돈 이야기를 자주 할까?
③ 서장댁은 돈을 얼마나 냈을까?
④ 진영은 왜 절에 왔을까?
⑤ 주인공은 누구인가?

4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등장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② 현재 일어난 일과 회상한 사건을 뒤섞어 서술하고 있다.
③ 인물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주인공의 눈에 비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다른 인물이 경험한 사건을 제3의 인물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49. 위 글에서 공간적 배경을 '절'로 설정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빈부 차별이 없는 공간을 설정하여 현실 사회의 모순과 대조하기 위해
② 속세와 단절된 공간에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
③ 신성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부정적 세태를 그려내어 주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④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삼아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⑤ 인간 구원의 장소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인물이 구원을 얻는다는 암시를 주기 위해

50. 〔A〕-〔B〕-〔C〕 대화의 흐름처럼 〈보기〉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 보 기 〉

갑돌 : 야, 김병수. 회비 내랄 때는 안 내고 동창회는 왜 왔냐?
을석 : _____
병수 : 일 없다.

① 가서 동창회비 가지고 다시 올래, 아니면 그냥 갈래?
② 기다렸다가 남은 기념품이나 하나 얻어 갈래?
③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동창회가 늘 적자야.
④ 야, 친구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⑤ 여길 오다니 너 뻔뻔하구나.

51. 〈보기〉는 이 소설의 끝 장면이다. 위 글의 ㉠~㉤과 〈보기〉의 ㉮~㉰를 관련시켜 소설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문수의 사진이 말끔이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참나무 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깃에 날아 내리고 있었다.

"㉲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 진영은 중얼거리며 참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다.

① ㉠→㉮ 절에 두었던 사진을 찾아 태우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여 살기로 결심했음을 의미한다.
② ㉡→㉯ 문수의 기억을 연기로 날려보내며,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다.
③ ㉢→㉱ 문수에 대한 그리움을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할 것을 다짐하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항거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⑤ ㉤→㉰ 현실적 한계 앞에 '주저앉고' '내려오는 것'은 현실과 대결에서 패배하였음을 나타낸다.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카프! 이것은 운동화에 달린 상표만은 아니다. 그 어원을 알아보면,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Citius, Altius, Fortius)라는 라틴어의 첫 글자를 모으고 정관사 '르'를 붙인 것이다. 디동(Henri Martin Diedon)이 운동선수들에게 한 이 말은 쿠베르탱이 IOC 회장직을 사임하는 연설에서 올림픽 공식 표어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쿠베르탱의 이 말은 결국 그가 근대 올림픽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이라는 본래 정신을 붕괴시키는 실언이 되고 말았다.

르카프의 비극! 그것은 무엇일까?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에서 고대의 올림피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육체의 근육만을 특출하게 발달시키는 '스포츠'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그것은 균형 잡힌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그 역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플라톤의 이러한 비판은 오늘의 올림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도 상응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 플라톤의 비판이야말로 오늘날 기록주의 실적주의 결과주의적 스포츠를 낳게 한 현대 스포츠상업주의의 모태가 되고 있다. 플라톤 비판의 함정은 바로 육체와 정신을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

르카프!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은 이러한 올림피즘이야말로 소외노동의 전형적 형태라고 비판한다. 소외노동이란 노동 그 자체가 삶의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풍요로운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의미 그 자체를 말살하는, 즉 인간 주체가 노동에 의해 소외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심리를 부추기는 르카프의 비극은 바로 스포츠에 의한 스포츠 소외이며, 이는 결국 인간 소외라는 비극으로 귀결된다.

기철학(氣哲學)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양인의 스포츠 개념은 전통적으로 몸을 통한 마음의 수련으로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은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스포츠는 정신과 분리된 육체의 기운을 집약하여 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집약적 표출은 전체적인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며, ㉡ 그 파괴의 결과가 메달 수로 집계되고, 이것은 또 국력으로 비약된다. 그것은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보는' 스포츠이다. 그리고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궤도를 벗어나 국가 주도의 아마추어리즘에 지배되고 있다.

스포츠란 본래 어원적으로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일로

부터의 일탈(逸脫)'을 의미한다. 스포츠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놀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대중 스포츠로서의 '놀이'의 본질을 회복하는 인간화 작업의 일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메달 수 때문에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소외 스포츠 개념에서 벗어나 좀더 여유 있게 민주적 삶을 쟁취해 나가는 계기로서 올림픽의 의미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네오마르크시스트 : 정통파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에서 분파(分派)된 사람들.

52. 위 글의 논지 전개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후 절충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②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한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④ 일반적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⑤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53.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① 플라톤은 몸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② 플라톤은 신체적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③ 플라톤은 육체와 정신을 이원적인 존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④ 플라톤은 스포츠의 대중화에 앞장선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⑤ 플라톤은 삶의 기쁨을 위해 체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54.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상황을 바르게 말한 것은? 〔1점〕

① 주객전도(主客顚倒)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③ 진퇴양난(進退兩難)　④ 선공후사(先公後私)
⑤ 시종일관(始終一貫)

55. 위 글에서 언급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3점〕

① 수녕 : 저는 금메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궁이 좋아서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참된 의미의 체육 활동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② 혜승 : '88서울올림픽은 화합의 장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스포츠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상징적 대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③ 동성 :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금메달을 빼앗겼지만, 금메달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메달에 집착하니 내 스스로가 비인간화되는 것 같아요.
④ 현식 : 동서 냉전의 시대에 소련과 동독의 선수들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그것은 선수들이 국가 주도로 집중 훈련되었기 때문이지요.
⑤ 채원 : IOC는 올림픽 경기를 치르면서 TV 중계권료와 광고 수입 등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거대한 기업이 되었어요.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뇌물 스캔들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 농약이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이나 해충,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에 있는 생물로 만든 천연농약을 뜻한다. 생물 농약을 개발한 것은 흙 속에 사는 병원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할 목적에서였다. 뿌리를 공격하는 병원균은 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병원균을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화학 농약의 경우 그 성분이 토양에 달라붙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물 성장을 돕고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는 미생물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식물 성장을 돕고 항균 작용을 하는 미생물집단을 '근권미생물'이라 하는데, 여러 종류의 근권미생물 중 농약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것은 뿌리에 잘 달라붙는 것들이다. 근권미생물의 입장에서 뿌리 주변은 ⓐ 와/과 비슷한 조건이다. 뿌리 주변은 뿌리에서 공급되는 양분과 안락한 서식 환경을 제공받지만, 뿌리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황량한 지역이어서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뿌리 주변에서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미생물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얼마나 뿌리에 잘 정착하느냐가 생물 농약으로 사용되는 미생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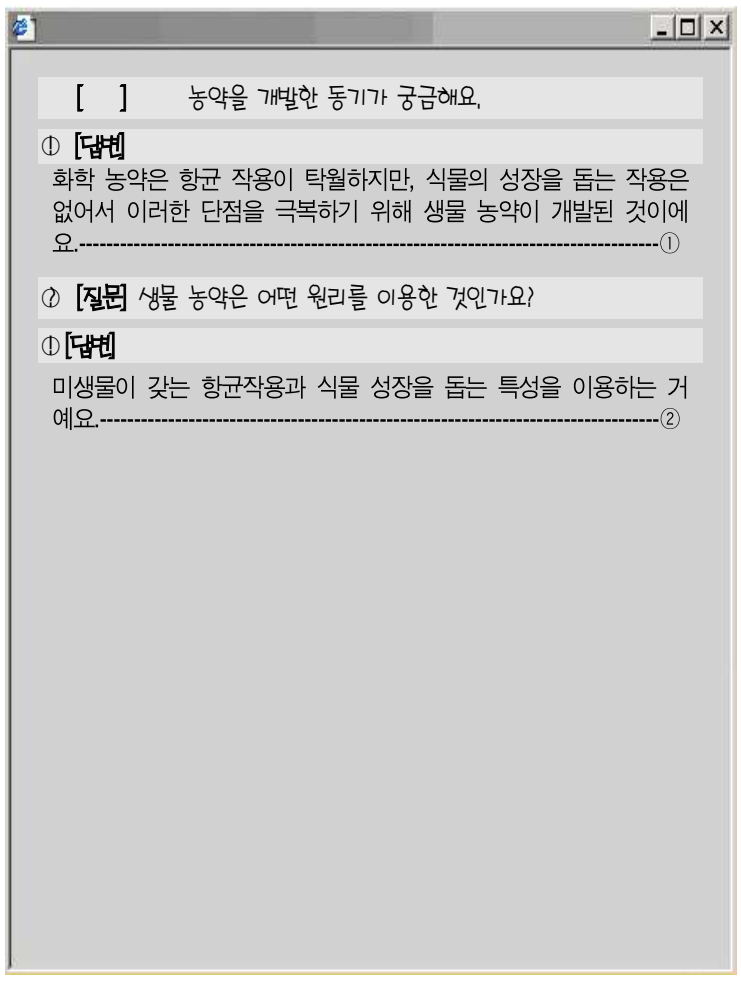
생물 농약으로 쓰이는 미생물은 식물 성장을 돕는 성질을 포함한다. 미생물이 만든 항균 물질은 농작물의 뿌리에 침입

하려는 곰팡이나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죽게 한다. 그리고 병원균이나 곤충, 선충에 기생하는 종들을 사용한 생물 농약은 유해 병원균이나 해충을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흰가루병은 대부분의 채소에 생겨나는 곰팡이균 때문에 발생하는데, 흰가루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의 영양분을 흡수해 죽이는 천적 곰팡이〔암펠로마이세스 퀴스콸리스〕를 이용한 생물 농약이 만들어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 항생작용을 위주로 한 생물 농약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뿌리에 사는 생육촉진세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기(轉機)를 맞게 된다. 생육촉진세균은 뿌리 표면이나 내부에 기생하면서, 성장을 저해하는 균이나 병원체의 침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생육촉진세균이 기생하는 식물은 세균,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각종 질병에 강하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이로써 생물 농약은 그 적용 범위가 항생작용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효과가 식물 전체에 미친다는 점, 좀더 다양한 외부병원균 및 불량 환경에 맞선다는 점에서 ㉡ 생육촉진세균을 이용한 생물 농약은 기존의 생물 농약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생물 농약은 친환경적이고, 계속 사용해도 약효가 떨어지지 않아, 해충의 ㉮ 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개발비도 화학 농약 개발비의 1/10 수준에 머물러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생물 농약을 사용하는 농법은 기존의 농법이 지녔던 단점을 극복하는 선진 농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56. 다음은 인터넷 질문방에서 '생물 농약'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이 대답한 내용들이다.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57. ㉠에 비해서 ㉡이 갖는 특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① 곰팡이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그 성분이 토양에 달라붙지 않게 되었다.
③ 효과가 식물 전체에 미칠 수 있게 되었다.
④ 외부의 병원균에 맞서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⑤ 뿌리 주변에 기생하는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58. 위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고려했을 법한 글쓰기 전략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ㄴ. 유추의 방법으로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는 게 좋겠어.
ㄷ. 두 대상 간의 공통점에 주목하여 서술하여야겠어.
ㄹ. 대상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알기 쉽게 설명해야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ㄹ ⑤ ㄴ, ㄹ

5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① 환경 조건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생물의 성질
②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
③ 유기 물질이 미생물 또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
④ 서로 다른 약물들이 동일한 투여량으로 같은 효능을 보이는 특성
⑤ 병원체(病原體)가 화학 요법제나 항생 물질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하여 나타내는 저항성

60.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달걀의 노른자위 ② 사막의 오아시스
③ 빛 좋은 개살구 ④ 덫에 걸린 쥐
⑤ 모래 위의 성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